

# 石洲 權輿의 『石洲集』 考察

Consideration on *Seokjuchip*  
- A Collection of Kwon Phil's Works -

김 순 희 (Kim, Soon-Hee)\*

## ◁ 목 차 ▷

1. 緒言	3.1 原集
2. 『石洲集』의 간행 배경	3.2 外集
2.1 原集과 外集의 간행	3.3 別集
2.2 別集의 간행 과정	3.4 기술방식
2.3 三刊本の 간행 과정	4. 結論
3. 『石洲集』의 구성과 내용	<참고문헌>

## < 초 록 >

石洲 權輿(1569~1612)은 한문학이 융성했던 조선 중기의 주목받는 시인으로 그의 시는 한국 한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권필의 위상으로 인해 그의 문집인 『石洲集』은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石洲集』은 原集과 別集, 外集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도 전해지고 있다. 『石洲集』의 편차방식은 후대의 문인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 이후의 문집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石洲集』이 초간된 것은 권필의 사후 20년 뒤인 1632년(인조 10, 壬申)이다. 권필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詩稿를 沈器遠에게 주었다. 심기원과 오숙은 원고의 편차를 정리하였고 李植이 문집에 실릴 작품을 선별하고 정리하여 지금의 『石洲集』 원고로 교정 편집하였다. 이를 심기원이 전주의 부윤으로 재임하던 홍보에게 문집의 印刊을 상의하여 전주에서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石洲集』이 중간된 것은 1674년(현종 15, 甲寅)이다. 중간본에는 초간본에 수록되지 못한 시 100여 수가 송시열에게 산정을 거쳐 별집으로 추가되었다. 삼간본은 후손인 권적이 1742년(영조 18, 임술)에 전주에서 간행하였다. 삼간본은 원집과 외집, 별집의 내용에 다른 것이 없고 특별한 간행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전에 간행한 문집의 수량이 적어 주변의 요구에 의해 다시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要語: 권필, 『석주집』, 심기원, 오숙, 이식, 홍보, 송시열, 권적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2년 6월 11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2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Kwon Phil(1569-1612, his pen name is Seokju) was a prominent poet in the mid Chosun Dynasty when Chinese literature had flourished, and his poetry has been estimated to show a cross section of Chinese literature in the Chosun Dynasty. *Seokjuchip*, the collection of Kwon Phil's works, was published several times, thanks to his literary standing. *Seokjuchip* was composed of original collection, extra collection and appendix, and also its manuscript has been descended up to this day. The compiling way of *Seokjuchip* has been a role model of compiling a collection of works and given an important influence to the later writ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ce of *Seokjuchip*.

In 1632(the reign of King Injo, Chosun Dynasty, 10years), *Seokjuchip* was published first 20 years after Kwon Phil had been dead. Kwon Phil gave his manuscript of poetry to Shim Kiwon in the face of his death. Shim Kiwon and Oh Suk arranged the compilation of his manuscript, and Lee Chik edited them after selecting poems among many manuscripts. Shim Kiwon discussed the seal of a collection with Hong Bo, at last the first issue of *Seokjuchip* was put out in Jeonju where Hong Bo had been serving as buyun of Jeonju. The second issue of *Seokjuchip* was published in 1674. Song Siyul chose about 100 poems which were not put out in the first issue and added them to the first issue of *Seokjuchip* and edited a collection of works, in the form of extract collection. At last the second issue of *Seokjuchip* was published in 1674(the reign of King Hyunjong, Chosun Dynasty, 15years).

The third issue of *Seokjuchip* was published in Jeonju in 1742(the reign of King Youngjo, Chosun Dynasty, 18years) by Kwon Chuk, Kwon Phil's descendant. There were not any differences of the contents and the compilation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issue of *Seokjuchip*. Therefore we can guess that the third issue may have been published to increase the quantity of books.

Key words: Kwon Phil, *Seokjuchip*, Shim Kiwon, Oh Suk, Lee Chik, Hong Bo, Song Siyul, Kwon Chuk

## 1. 緒 言

石洲 權輶(1569~1612)은 조선 최고의 시인, 나아가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권필은 소위 穆陵盛世로 대표되는 당대문단에서 이안눌과 함께 조선 중기의 文運이 크게 펼쳐진 시기에 활동하였다. 당시의 많은 시인 중에서도 권필은 주목받는 시인으로서 한국 한시가 성취한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권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의 시세계에 관한 연구<sup>1)</sup>로 그의 문집인 「石洲集」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미미하다.

권필의 관향은 안동이며 자는 汝章, 호는 石洲이고 松江 鄭澈의 문인이다.

- 
- 1) 김은희, “石洲 권필 文學의 一性格: 方外人的 傾向을 中心으로,” 『德成女大論文集』 29(1998. 12), 243-279.  
 김창호, “石洲 권필 詩의 研究,” 『漢字漢文教育』 제13집(2004. 11), 371-404.  
 ———, “權輶과 許筠의 交遊를 通해 본 16世紀 末 - 17世紀 初文壇의 한 모습,”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제8회 연구발표회(2007. 7), 2-13.  
 문범두, “石洲 권필문학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嶺南大 大學院, 1994. 2).  
 ———, “석주 권필의 사회시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25집(1994. 8), 321-356.  
 成範重, “石洲 권필의 漢詩 考察,” 『울산어문논집』 5(1989. 2), 159-197.  
 소재영, “石洲 권필소론,” 論文集, 송진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동서문화연구소』 6,1(1976. 3), 441-458.  
 송재용, “石洲 權輶의 諷刺詩에 관한 一考察,” 우리문화회, 『우리문화연구』 제9집(1992. 12), 95-123.  
 ———, “石洲 권필론,” 『漢文學論集』 12(1994. 11), 389-425.  
 이대구, “石洲 권필의 시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韓國敎員大 大學院, 1994. 8).  
 이상원, “석주 권필 시의 미학: 광기와 풍자로 얼룩진 야유의 시세계,” 『뿌리』 통권34호(2009년 여름), 194-247.  
 鄭 珉, “石洲 權輶의 雜體詩 研究(其一),”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제4집(1986. 12), 113-150.  
 ———, “石洲 권필의 詩觀과 詩精神,” 『安東漢文學』 2(1991. 8), 261-299.  
 ———, “石洲 권필 年譜,”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韓國學論集』 20(1992. 2), 269-295.  
 정성배, “石洲 권필의 文學의 小攷: <光海君日記> 기사를 중심으로,” 『전통어문연구』 8(1996. 3), 67-85.  
 조도현, “<酒肆丈人傳>과 <郭索傳>에 나타난 權輶의 作家意識,”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106집(2009. 12), 241-260.

조선 초의 文衡으로 문단을 장악하였던 陽村 權近(1352~1409)의 5대손이고 예조참의를 지낸 權擘의 다섯째 아들이다. 이러한 가계로 보아 전형적인 사대부가문의 출신이었으나 성격이 소탈하고 구속을 싫어하여 평생 벼슬하지 않은 채 일생을 마쳤다. 친우들의 추천으로 제술관과 동몽교관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더욱 세상을 멀리하여 江華에 들어가 후생을 교육하였다.

권필의 일생에서 가장 특이한 시기는 그의 나이 33세 되던 1602년(선조 34)이다. 이때 중국에서 顧天峻과 崔廷健이 사신으로 왔는데 이들을 맞이하는 接伴使가 月沙 李廷龜였다. 이정구는 문장사대가의 하나로 꼽히는 문인이었음에도, 고천준이 시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상대하여 시를 지을 수 있는 布衣의 권필을 제술관으로 임명하였다. 권필은 천부적인 창작력을 발휘하여 일시에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주위에서 인정받았으나 다시 강화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42세에 서울로 돌아온 권필은 광해군의 정치와 외척의 발호 등에 대해 분노하였으며, 더욱 비판적인 경향의 시인이 되었다. 44세에 逆獄에 연루되어 장형을 받고 慶源으로 유배령을 받았다. 귀양지로 출발하여 동대문을 지날 때 친구들이 주는 이별주를 폭음하고 杖毒으로 죽었다.

권필은 비록 벼슬에 오르지도 않고 일찍 세상을 떴으나 한시의 여러 형식에 두루 능통했던 대가였다. 살아서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명성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문집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사후 20년 만에 문집이 출간되었다. 본고에서 『石洲集』을 연구의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이 문집이 조선조 문집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石洲集』은 권필의 생전에 일차적으로 정리된 초고를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문집의 발간이 계획되었을 때 원고를 산정하고 편제를 확정된 교정자가 있었고, 이를 간행한 인물이 각각 있었다. 그리고 重刊과 三刊을 거듭하였으며, 原集과 別集, 外集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도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石洲集』의 편차방식은 후대의 문인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 이후의 문집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石洲集」의 간행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특히 原集의 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문집이 후대 문집의 전범이 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집을 중심으로 별집과 외집을 비교 고찰하여 동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문집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의를 평가함으로써 「石洲集」의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石洲集」은 권필의 제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교정과 서발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月沙 李廷龜, 東岳 李安訥, 澤堂 李植, 谿谷 張維, 尤庵 宋時烈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장가들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문집의 간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변의 사정은 「石洲集」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韓國文集叢刊에 실려 있는 「石洲集」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책은 奎章閣 소장본으로 원집과 외집은 <奎 7024>, 별집은 <奎 5076>의 합본이다.<sup>2)</sup> 인터넷 규장각도서해제에서는 ‘<奎 7024>본은 原集과 外集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문은 張維의 것만 있으며, 서문의 판형 크기에 출입이 있다. 또한 장유 서문 제2판 마지막행에서 제3판 첫 행에 걸친 5글자(皆公門下士)가 빠져 있다. 이 부분은 別集과 습된 이후의 판본에서는 보충되는 것으로 보아 <奎 7024>본은 초간본일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고 하였으나 심기원과 관련한 부분<sup>4)</sup>의 삭제가 초간본이 간행된 1932년 아닌 심기원이 역적으로 죽음을 당한 1944년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奎 7024>본은 1674년에 간행된 중간본이라고 보아야 한다.

## 2. 「石洲集」의 간행 배경

현재까지 「石洲集」은 모두 3차례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간본은 권필의

2) 『韓國文集叢刊75』, 「石洲集」條, ‘凡例’ 참조.

3) <[http://e-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mj&cn=GK05079\\_00](http://e-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mj&cn=GK05079_00)>.

4) 李廷龜의 「石洲集序」와 張維의 「石洲集序」에 심기원의 이름 및 관련내용이 빠져있음.

사후 20년 뒤인 1632년에 간행되었고, 1674년에 중간하였으며 三刊은 1742년에 이루어졌다. 초간에는 원집과 외집을 간행하였고 중간본에는 별집이 추가되었다.<sup>5)</sup>

## 2.1 原集과 外集의 간행

『石洲集』이 초간된 것은 권필의 사후 20년 뒤인 1632년(인조 10, 壬申)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문과 발문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방증 자료를 살펴보면 이전에 권필의 시문이 『石洲小稿』라는 제명으로 정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필의 문집과 관련하여 첫 번 째로 언급한 사람은 許筠이다.

汝章(권필의 자)은 게으르고 산만하여 지은 것을 모아 놓지 않았다. 沈生(沈器遠을 말함)이 전해지는 것 수 백 편을 모아 石洲小稿라 이름하고 나에게 보여주었다.<sup>6)</sup>

허균은 권필과 교유했던 인물로 권필의 시에 대해 ‘汝章의 시는 절대가인이 화장하지 않고 구름을 가로막는 소리로 촛불아래에서 우조와 계면조를 부르다가 노래가 그치기도 전에 일어나 가버리는 것 같다’<sup>7)</sup>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허균에게 『石洲小稿』를 보인 沈器遠은 권필의 제자로서 동문 수학한 洪燾와 함께 문집을 간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심기원이 쓴 『石洲集跋』과 이징구와 장유의 서문 및 이식이 홍보에게 보낸 글에서 간행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 글들 중에서 초간본 『石洲集』 간행과 관련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현전하고 있는 판본들의 인쇄상태나 서체 등을 고려할 때 3차례 이상의 간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許筠, 『惺所覆韻藁』, 권4, 『石洲小稿序』.  
‘汝章懶散不哀所著 沈生拾其傳誦者數百篇 弁曰石洲小稿 以示余.’

7) 南龍翼, 『壺谷詩話』.  
‘許筠評石洲詩曰 汝章之詩 如絕對佳人 不施鉛朱 以暹雲聲 唱羽調界面調於燭下 曲未終而而去 蓋指詩語 自然可愛 久而愈不忘也.’

㉒ 내가 동지 천과 오숙우와 선생의 유고를 취하여 왕복하면서 편차를 정리하고 동악 이안눌과 택당 이석에게 부탁하여 간행하고자 하였다. 마침 풍녕 洪甯가 전주의 부윤이 되었으니 선생의 조카 사위로서 간행을 주관하였다. 나도 마침 전라도관찰사로 있어서 이 일을 마칠 수 있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불행히도 선생의 젊었을 때의 원고는 난리 중에 잃어버렸으니 매우 애석하다.<sup>8)</sup>

㉓ 심상서 수지가 평소에 나를 만나면 문득 석주 권여장은 한번쯤 서로 마주해 울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곤 했다. 신미년 겨울, 수지가 호남 절도사를 맡아 나가면서 길 떠날 때 내게 들러 말했다. “석주의 뼈는 이미 썩었습니다. 다만 그 썩지 않을 큰 사업이 여태 약간 편 남아 있으니, 이것마저 썩힐 수야 있겠습니까? 이미 완산부윤 홍여시 보에게 부탁하여 판목에 새길 것을 꾀하였습니다. 석주가 평생 스스로 말하기를 상공을 지기라 하였으니, 상공이 아니고는 이 원고에 서문을 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아! 여장의 시고에 내 어찌 아무 말 없을 수 있으랴. 여장이 예전에 선공의 『翫齋集』을 가지고 와서 내게 서문을 구하므로 보잘 것 없는 글이 실로 책머리에 실려 있다. 누가 오늘에 또 여장의 시고에 서문을 쓰라고 한단 말인가?<sup>9)</sup>

㉔ 지금의 임금께서 즉위하여 아무 관리로 추증하라 명하시고 곧은 도리로 신원하였다. 완산부윤 홍공 보가 비로소 공의 유고를 판목에 새겼는데, 작업이 완성되자 내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공을 사모함을 알고는 일찍이 한마디 말로 장려해 주심을 입었던 일은 여태껏 감히 잊지 못하겠다. 책에 서문을 쓰라는 부탁을 또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는가?<sup>10)</sup>

㉕ 홍부윤(洪府尹) 보(寶)에게 받들어 부치다

석주 선생의 문집은 이제 이미 간추려서 표시를 붙여, 신·구분 및 가장난고

8) 沈器遠, 「石洲集跋」.

‘余與同志天坡吳肅羽 取先生遺稿 往復編次 屬諸李東岳及李澤堂汝固 而劖劂之 適洪豐寧寶 出尹完山 於先生甥塚也 實主鋟梓 而余又忝按是邦 以訖其役 斯豈非大幸歟 不幸先生少時稿一卷 逸於禍 甚可惜也 崇禎壬申仲春 門人沈器遠謹跋.’

9) 李廷龜, 「石洲集序」.

‘沈尙書遂之 居平遇余輒言 石洲權汝章未嘗不相對一涕 辛未冬 遂之出按湖南節 將行過余曰 石洲骨已朽矣 惟其不朽之大業 尙有若干篇 豈又可朽也 已屬完山尹洪汝時 寶 謀入梓 石洲平生自謂相相知 非相公莫可序此稿 嗚呼 汝章之稿 余烏得無言 汝章昔嘗之先公翫齋集 求余序 不腆之文 實在卷首 孰謂今日又序汝章稿也.’

10) 張維, 「石洲集序」.

‘及今上踐阼 命贈某官 以伸直道 完山尹洪公寶始鋟公遺稿 刻成 屬余序之 余結髮知慕公 嘗得一言獎許 至今未敢忘也.’

와 함께 그 아들 향에게 맡겨 보냈습니다. 이른바 신본이라는 것은 청원공 심기원이 선한 것이고, 구분은 동악 숙부의 집에서 나온 것인데, 누가 선한 것인지 모릅니다. 구분의 7백여 수는 잡다한 듯 하고, 중간 중간에 풍자가 너무 심한 것이 있습니다. 신본 4백여 수는 너무 소략하고 산문이 빠져있습니다. 이제 가장난고에 의거하여 두 집의 본을 참작해서 이 문집을 정하였는데, 취사가 가장 어려운 곳은 두 세 분의 종장과 더불어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잡문을 가려 뽑아 그 뒤에 붙인 뒤에야 이 선집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선생의 시가 정수하고 경책으로 삼을 만하여 아꼐 만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가려 뽑아서는 안 되며, 가려 뽑는 것은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살림이 넉넉지 못해 인출이 어려우니, 만일 편질이 많게 되면 간행하여 보급하는 것이 폭넓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이 선대이신 습재공의 문집을 새길 때는 열에 한 둘만을 가려 뽑았는데, 이제 이 문집은 열에 한 둘만을 버렸으나, 또한 몹시 아까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단으로 재량한 것은 아니니 두 집에 전하던 분이 먼저 있었습니다. 만약 훗날 덧붙이게 된다면 속집의 간행 또한 마땅히 있어야겠지요.

바라건대 영공께서 잠시 이에 따라 잘 베껴서 거둬 교정을 더해 속히 새기기를 도모하신다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저는 뒤늦게야 선생의 얼굴을 알아, 겨우 東都로 작별한 인연을 얻었을 뿐입니다. 영공께서 도리를 지키는 마음에 감동하여 이 문집에 제 정성을 다 쏟았사오니, 다만 영공께서는 헤아리소서. 승정 신미년 5월 정해에 이식은 두 번 절합니다.11)

㉔는 『石洲集跋』로 심기원이 이 발문을 쓴 것은 1632년 음력 2월(仲春)이다. 이 발문은 목판본 『石洲集』에는 빠져 있고 장서각 소장 필사본에만 수록되어 있다.12)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심기원은 『石洲集』 간행의 주체였다. 이식이 홍보에게 보낸 글에 의하면 심기원이 정리한 초고는 400여 수의 시가 실려 있는

11) 李植, 『奉寄洪府尹寶』.

‘石洲先生集 今已抄定付標 并新舊本及家藏亂稿 付其胤子仇去 所謂新本 卽青原君所選舊本 出東岳叔父家 未知誰選 舊本七百餘首似雜 而間有譏刺已甚者 新本四百餘首 太略而闕於文 今據家藏亂稿 參以二家本 定爲此集 其最難取捨處 與二三宗匠 商確乃定 兼抄雜文 以附其後而後 此選始完 或言先生詩精髓警策 無不可愛 此不可選 選者妄也 此論固善 然吾東人寒儉 艱於印出 若篇幅夥 則行布不廣 先生之梓其先集 十抄一二 今抄此集 十捨一二 亦不免於多愛矣 然非不佞所臆裁 二家本已選之矣 若異日事有衍 卽續集之印 亦宜有之 望令公姑依此繕寫 重加釐正 速謀鐫刻幸甚 不佞晚識先生生面 纔獲東都鈔別之緣 感令公守玄之事 於此集 旣已盡情依 惟令兄亮之 崇禎辛未五月丁亥 李植再拜.’

이 문장은 『澤堂集』 別集, 권18 書에도 실려 있다.

12) 정민 역, 『石洲集』 (태학사, 2009), 655 재인용.

상태였다. 허균이 보고 서문을 쓴 「石洲小稿」가 이것일 것이다.

권필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詩稿를 심기원에게 주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권필은 제자이자 생질인 심기원에게 자신의 시고를 작은 보자기에 싸서 주고, 보자기의 뒤에 칠언절구의 絶筆詩를 적었다. 그리고는 3일 뒤에 체포되어 죽었으므로<sup>13)</sup> 이 초고는 권필 자신이 정리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심기원은 오숙과 함께 원고의 편차를 정리하였는데, 오숙은 권필의 문인은 아니지만 심기원이 변호해 준 인연으로 친분이 있었다. 일차적인 작업을 마친 심기원은 문집의 간행을 위해 이안눌과 이식에게 원고의 교정을 부탁하였다. 이안눌은 권필의 체포와 유배, 사망 소식을 들은 날짜별로 12수의 시를 지어 애도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으며,<sup>14)</sup> 당시에 문단을 주도하던 대가였다. 그러나 이안눌은 원고의 교정에 전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문집에 실릴 작품을 선별하고 편차를 정리하여 지금의 「石洲集」으로 만들어 놓은 인물은 李植이다. 이식은 月象谿澤의 하나에 포함되는 당대의 문장가로서 이안눌과는 종숙질 사이이다.

교정을 마친 심기원은 때마침 전주의 부윤으로 재임하던 홍보에게 문집의 간행을 상의하였고, 마침내 전주에서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심기원의 발문 내용으로 보아 권필의 생전에 있었던 원고가 임진란 중에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㉞는 이정구가 1632년 음력 4월(孟夏)에 쓴 서문이다. 이정구는 권필과 비슷한 연배로 같은 지역에서 이웃하여 살았으며<sup>15)</sup> 이러한 인연으로 권필의父인 권벽의 문집 「翫齋集」의 서문을 쓰기도 했다. 이정구의 서문에도 심기원과 홍보가 이 문집의 간행을 주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정구가 쓴 서문의 첫 행이 상란에서 5자 비어 있는데 이는 「月沙集」<sup>16)</sup>과 초간 후쇄본으로 보이는 충남대 소장본<sup>17)</sup>을 살펴보니 ‘沈尙書遂之’라 되어 있다. 그리고 제 3행에도 ‘遂之’이라는 글자가

13) 「石洲集」 권7, 「絶筆」 注.

‘先生一日 出所著詩稿 裹以小袱 付甥沈某 仍書此一絶於袱背 後三日 被迫諸理 遂卒.’

14) 「東岳集」 권10에 권필의 체포와 유배, 사망 소식을 들은 날짜별로 12수의 시 수록.

15) 「月沙集」 권39, 序上, 「翫齋集序」.

‘余少也 寓居公第之傍 又與公諸子遊.’

16) 「月沙集」 권40, 「石洲集序」.

17) 충남대 소장본 고서 集.別集類-韓國人 375 2.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1644년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沈器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㉔는 장유가 쓴 서문이다. 장유도 月象谿澤의 하나로서 문명이 높았다. 장유가 쓴 서문<sup>18)</sup>도 충남대 소장본과 비교해보니 중간본에는 ‘湖南方伯沈公器遠’이라는 8자와 다음 행에 ‘皆公門下士’라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데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장유의 서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장유는 권필의 伸冤이 이루어진 뒤에 문집이 간행될 수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인조는 반정 직후 권필에게 致祭케 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도록 하였으며<sup>19)</sup> 사헌부 지평을 증직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권필의 문집이 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㉕는 이식이 홍보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식이 출간을 위한 교정을 완료하고 홍보에게 간행을 부탁하는 내용인데 이 글에 『石洲集』의 간행 경위가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심기원 등에게 부탁을 받은 이식은 이미 있던 입수한 가장난고에 신본과 구본을 수합하여 刪定에 임했다. 신본은 심기원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구본은 숙부인 이안눌<sup>20)</sup>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이 두 본은 각각 400수와 700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었으므로 많은 차이가 있던 필사본이었다. 이식의 안목으로 볼 때 구본은 번잡스럽고 신본은 소략하여 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식은 권필의 뛰어난 시문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간행에 필요한 경비의 문제를 고려하여 原集의 교정을 완수하였다.

이식이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작품의 풍자성이다. 권필의 작품에는 당시의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풍자, 비판하여 문집에 수록하기 어려운 시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식은 이러한 작품의 문집 수록 여부에 대해 몇 몇과 상의하여 확정하였는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식은 『石洲集』의 續集이 간행될 필요성을 예견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형편으로는 原集의 상태로밖에 간행하지 못하지만, 후일에 續集의 간행이 있어야 이 문집이 완전하

18) 『谿谷集』 권6, 『石洲集序』.

19) 인조실록 권1, 1623년 4월 11일 條.

20) 규장각도서해제의 ‘石洲集 條’에서 ‘동악 이안눌의 숙부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안눌이 이식의 從叔이므로 ‘숙부 이안눌의 집’이라고 정정해야 할 것이다.

게 전할 수 있음을 예견한 것이다. 이식은 시를 정리하여 원집에 포함시키고 그 밖의 雜文을 外集으로 편집하여 초간본의 저본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식은 「石洲集」의 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교정자로서의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식은 이안눌의 문집인 「東岳集」의 선정을 주관하여 간행하였는데<sup>21)</sup> 이로 보아 문집의 撰集과 교정에 있어서 동시대 인물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2 別集의 간행 과정

「石洲集」이 중간된 것은 1674년(현종 15, 甲寅)이다. 중간본에는 초간본에 수록되지 못한 시 100여 수가 별집으로 첨부되었다. 따라서 중간본은 원집과 외집 그리고 별집으로 구성되었다. 별집은 당시 전라도관찰사였던 李東稷이 「石洲集」을 중간할 때 추가한 것이다. 당시 권필의 손자 권수가 원집에 수록되지 못한 시를 중간본에 추가하기 위하여 송시열에게 600여 수의 시의 산정을 부탁하여 100여 수의 시를 산정하여 수록하였다. 송시열은 별집의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집에서 산삭을 해야 했던 것은 그 말에 부록에 실린 택당 이식의 편지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시의 남은 것이 6백여 수나 되고 문 또한 약간 편이 있다. 그 당시에 택당께서도 또한 흠이 있어 버린 것은 아니었다. 대개 후일을 기다린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제 호남 안찰사 이동직 공이 장차 가져다가 판목에 새겨 별집으로 만든다고 한다. 선생의 증손인 권수가 이공의 뜻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중에서도 또한 취하고 버릴 만한 것이 있겠는지요?” 내가 말했다. “그렇다네. 옛날에서 지금을 보는 것은 또한 지금에서 훗날을 살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네.”

마침내 그 가운데 1백여 수를 가려 뽑아 보내주었다. 젊은 시절에 장난으로 지은 것과 승려들과 함께 주고받은 허망한 말 및 택당이 말한 풍자가 너무 심한 것 등은 모두 수록하지 않았다. 중국 사신을 접대할 적에 지은 여러 작품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지금 세상에서는 다시 이 같은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sup>22)</sup>

21) 申翊聖, 「東岳集序」.

‘澤堂名植 大學士亦容齋之玄孫 實撰定公詩 以傳于世.’

중간을 담당한 이동직은 이안눌의 문인으로 이 해에 『澤堂集』을 간행하였다.<sup>23)</sup> 이동직은 『澤堂集』을 간행하면서 송시열이 산정한 저본을 바탕으로 『石洲集』의 重刊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시열은 별집에 수록할 시문을 산정하면서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유학자의 도리에 벗어나는 작품은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발문에서 밝혔듯이 젊은 시절에 장난삼아 지은 戲作과 승려들과의 교유시, 풍자가 심한 시는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사신과 주고받은 시는 남김없이 수록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명이 몰락한 뒤이므로 중국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는 행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시를 가치 있게 여긴 것이다. 여기에서 춘추대의를 주장하던 송시열의 입장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권필의 시가 사장된 것만도 500여 수가 되었다.

### 2.3 三刊本の 간행 과정

삼간본은 후손인 권적이 1742년(영조 18, 임술)에 전주에서 간행하였다. 권적은 권필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할 때 『石洲集』의 판본을 모아 세 번째로 간행하였다. 이 삼간본은 원집과 외집, 별집의 내용에 권필의 아들 權伉의 시문을 모은 『松庵遺稿』를 부록하고 李東稷의 발문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마지막 판에 “歲壬戌夏嗣孫按湖節重刊于完營”이라는 刊記가 있다. 이 밖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간행 의도가 보이지도 않는다. 이로 보아 이전에 간행한 문집의 수량이 적어 주변의 요구에 의해 다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2) 宋時烈, 『石洲別集跋』.

‘原集要刪 其說具在附錄中 澤老書可考而知也 其詩所餘六百餘首 文亦若干 當時澤老亦非疵棄也 蓋曰以俟後日云爾 今湖南案使李公東稷 將取以入梓 以爲別集 先生曾孫 以李公意來 以示余曰 亦有可以取捨者乎 余曰然矣 昔之視今 亦猶今之視後也 遂選其百餘道 以寄之 其少時戲作泊與緇流酬唱幻語 及澤老所謂譏刺已甚者 皆不錄 而其皇華時諸作之無所謂遺者 以今世不復見此事也.’

23) 宋時烈, 『澤堂集跋』.

‘文集之刊 全羅按使李公東稷實尸之 而家弟時杰爲宰南平 亦相其役云 崇禎紀元之闕逢 攝提格陽月日 恩津宋時烈序.’

이밖에도 판형과 서체를 대조해 보면, 서발 등을 통해 파악되는 것보다 많은 회수의 간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형태의 이본을 수집하고 대교하여 이본의 선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石洲集」의 간행 과정과 문집의 진정한 실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 3. 「石洲集」의 구성과 내용

#### 3.1 原集

##### 3.1.1 구성

원집은 모두 8권인데 시로만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집이 詩體의 구분이 없이 작품을 지은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 이 문집은 詩體別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특징이다.<sup>25)</sup> 이것은 「石洲集」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이식의 산정을 거쳐 완벽한 문집으로서의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文谷 金壽恒의 다음 기록으로 인해서이다.

화를 당하던 날에 이르러 불초들이 문집에 대한 일을 시험 삼아 물었더니 “나는 본래 재주가 범상하고 책을 읽은 것이 매우 적어 그동안 지은 것이 뜻에 맞지 않으니 어찌 기록해 둘 것인가. 그러나 너희들은 차마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니 마땅히 스스로 산정하여 집에 보관하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마라.” 하시고, 또 “문집은 마땅히 적게 해야 할 것이지 많아서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제가의 문집 중에 오직 「石洲集」이 가장 정밀한데 이것은 대개 택당이 산정한 것이다.”라고 하셨다.<sup>26)</sup>

24) 이에 대한 논의는 원고를 달리 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25) 「石洲集」을 살펴보면 한시의 하위 장르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七言排律만 빠져 있다. 五言排律은 여러 작품이 있으며, 별집에도 오언배율이 시려 있는데 칠언배율은 전하지 않는다. 이는 권필이 칠언배율의 형식은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6) 金昌翁, 「文谷集跋」.

김수항은 유배지에서 사사되기 직전 문집의 간행에 대해 아들인 三淵 金昌翁이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문집을 간행하는 일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논의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지만, 김수항은 『石洲集』이 조선조 문집 중에서 체제가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sup>27)</sup> 그리고 그 이유는 이식이 산정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김수항은 이식의 문집인 『澤堂集』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澤堂集』의 續集은 원집에서 누락된 시를 6권으로 모아 놓은 것인데, 그중 1권에서 4권은 이식이 직접 선정한 것이고 권5와 권6은 김수항이 선정하였다.<sup>28)</sup> 이러한 관계로 인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김수항은 이식이 편집한 『石洲集』을 가장 정밀하게 준비된 문집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집 8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수	수록 대상	편 수
권 1	五言古詩	40제 52수
권 2	七言古詩	33제 40수
권 3	五言律詩	115제 129수
권 4	七言律詩	79제 81수
권 5	五言排律	8제 8수
권 6	五言絶句	23제 29수
권 7	七言絶句	121제 203수
권 8	雜體	25제 32수
총 계		444제 574수

권필이 소장하고 있던 원고가 이렇게 한시의 형식별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기

‘至禍變日 不肖等試語及文集事 則曰 吾才本凡短 又讀書甚少 所述作曾不滿意 何足存錄 然汝輩如不忍泯棄 則宜自刪定以藏于家 亦不必假之人也 既又曰 凡文集宜少不宜多 我東諸家之籍 唯石洲集爲精 此蓋澤堂所刪定也.’

27) 김순희, “『문곡집』의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연구』 50집(2011. 12), 513-535.

28) 宋時烈, 『澤堂先生集序』.

‘續集詩四編 則并公所自選 而略有精粗之別者也 又詩二編則丁丑後所作 而文谷金相公壽恒所選也.’

는 어렵다. 이러한 배열은 이식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식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배열방식을 선택한 것인가. 한국 문집의 구성방식을 살펴 보면 대략 「三峰集」에서부터 詩體別로 배열하는 예가 보인다. 「三峰集」과 「石洲集」의 배열순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시체별로 구분하여 문집을 구성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三峰集」에 이어 「容齋集」과 「石川集」, 「芝峯集」 등에서 이러한 예가 보이는데 「石洲集」의 체제와 가장 유사한 문집은 「象村集」이다.

申欽의 문집인 「象村集」은 1630년에 초간되었으니 「石洲集」보다 2년의 차이는 있으나 동시대에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象村集」은 명대의 문인인 大復 何景明의 문집인 「大復集」의 체제를 본떠 편집한 것이다. 신흠은 月汀 尹根壽와 더불어 조선의 明詩派로 분류되는 인물로서<sup>29)</sup> 명대의 문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大復集」은 당시 조선의 문사들에게 널리 읽혔다.<sup>30)</sup>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신흠의 아들인 申翊聖이 「象村集」을 편집하면서 「大復集」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식이 권필의 문집을 산정할 때에도 「大復集」이나 「象村集」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石洲集」 이후의 문집들을 살펴보면, 「仙源遺稿」와 「淸陰集」이 시체별로 편집되어 있는데 「石洲集」과 일치하지는 않고, 趙緯韓의 문집인 「玄谷集」의 편차가 거의 동일하며 趙纘韓의 문집인 「玄洲集」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다. 권필은 조위한과 조찬한 형제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교류했던 관계라는 사실을 볼 때 「石洲集」이 이들의 문집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식이 편집한 「東岳集」이나 이식의 산정방식을 높이 평가한 김수항의 「文谷集」의 체제를 살펴보면 「石洲集」과 같이 시체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문집의 출간에 있어서 문집마다 간행의 배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문집의 편차가 다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29) 金萬重, 「西浦漫筆」.

‘若學明一派 濫觴於月汀玄軒諸公.’

30) 許筠은 「大復集」을 읽고 난 뒤 느낌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 「惺所覆韻藁」 권2, <讀大復集>.

### 3.1.2 내용

권필의 한시는 절구 뿐 아니라 고시장편을 비롯한 각체에서 고른 역량을 보여 당대의 추증이 높았다. 권필의 한시가 갖는 문학성에 대해서는 허균, 김만중, 남용익, 김득신 등의 평론가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했다.<sup>31)</sup> 여기에서는 권필의 絶唱으로 알려진 『過鄭松江墓有感』을 소개한다.

空山木落雨蕭蕭  
相國風流此寂寥  
惆悵一杯難更進  
昔年歌曲卽今朝

빈산에 낙엽지고 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상국의 풍류가 이곳에 쓸쓸하네  
한 잔 술 드리기 어려워 슬프도다  
지난날 가곡이 오늘 아침 일이로다

권필은 송강 정철의 문인이었다. 제자로서 스승의 묘소를 보고 감회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시에서 인용한 지난날의 가곡은 정철이 지은 『將進酒辭』를 말한다. 권필은 『將進酒辭』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남용익이 이 시를 비평하면서 ‘석주의 수구는 마치 웅문의 거문고 소리가 홀연히 귀를 놀라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sup>32)</sup>고 비평했다.

### 3.2 外集

외집은 1권인데 18제 24편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식의 편지에 의하면 심기원이 처음 정리한 것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외집의 구성을 문체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31) 정민, 앞의 책, 13.

32) 南龍翼, 『壺谷漫筆』.

‘蓋權之首句 有如雍門琴聲忽然驚耳 使人無不零涕.’

문체	편수	작 품	비고
疏	1	請誅賊子梁澤疏	外集
雜述	1	雜述	外集
說	2	蒼氓說, 從政圖說	外集
序跋	2	題握機橐籥後, 跋竹窓遺稿	外集
記	2	竹梧堂記, 花下小臺記	外集
行狀	1	伯氏行狀	外集
碑陰記	1	姊夫李上舍表石陰記	外集
祭文	1	祭宋聘君文	外集
傳	2	酒肆丈人傳, 郭索傳	外集
銘	4	古石鑄銘, 四吾堂銘, 閑居四件銘(4), 梳銘	外集
箴	1	自警箴(2)	外集
총계	18	22 작품	

권필은 시인으로서의 명망이 높았던 이유인지 문장은 많이 전하지 않는다. 외집에 실려 있는 문장의 구성을 보면 한문 문장의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필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布衣의 문사였으나 상소문인 『請誅賊子梁澤疏』를 지었다. 이 글은 권필이 강화도에 거주할 때 그 지역에서 양택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있었는데 사건담당자가 이를 은폐하려하자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올린 상소이다. 綱常과 公義를 지키고자 하는 권필의 엄정한 자세와 관리의 부패를 고발하는 기개가 잘 나타나 있는 문장이다. 상소문으로서의 구성이 완전하고 문체도 장중하여 권필의 작문능력을 알 수 있게 하는 글이다.

권필이 지은 記文은 3편인데 하나는 친구 林恠(子子定)이 지은 죽오당의 기문이고, 다른 것은 자신의 작은 쉼터인 小臺를 마련하게 된 과정과 그곳에서의 즐거움을 기록한 것으로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권필이 추구하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글이다. 권필의 문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2편의 傳이다. 傳은 중국의 사마천(司馬遷)의 『史記』 <열전> 이래 한자문화권에서 고유하게 발전되어온 수사 양식(修史樣式) 내지는 문학 장르로서, 한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그것을 일정한 관점에서 포폄(褒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대에 이르러 열전 외에도 사전(私傳), 가전(假傳), 탁전(托傳) 등이 생겨났다.<sup>33)</sup> 권필은 『酒肆丈人

傳』과 『郭索傳』을 지었는데 전자는 宋代의 주역학자인 邵雍과 술을 빚으며 숨어 사는 은자의 대화를 통하여 은연중에 유학을 비판하고 老莊의 방식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일종의 우언소설(寓言小說)이고, 후자는 게(蟹)를 의인화하여 쓴 가전 작품이다.

『石洲集』을 고찰하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周生傳』에 관한 문제이다. 이 책은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권말에 “癸巳仲夏 無言子 權汝章記”라고 명기하고 있어 『주생전』의 작자가 권필임을 알 수 있다. 창작시기는 “癸巳仲夏”라는 기록과 “明年癸巳春 天兵大破倭賊 追至慶尙道”라는 기록을 연관시키면 1593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권필은 25세의 나이로 강화에 거주할 때이다. 이 작품은 중국과 조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남녀의 삼각관계를 묘사한 애정소설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石洲集』에는 2편의 전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수록되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식이 이 소설의 존재를 몰랐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문집을 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3.3 別集

별집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1은 詩이고 권2는 文이 실려 있다. 권1에 실린 시는 원집의 배열방식을 따르고 있다. 작품의 수가 많지 않아 분권하지는 않았으나, 각 詩體의 처음에 상란에서 한 자 띄워 구별하였다. 雜體를 중심으로 원집과 별집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원집의 잡체는 권8에 수록되어 있는데 辭, 曲, 詞, 回文, 歌, 聯句 등의 다양한 詩體가 보인다. 그러나 별집에서는 聯句와 오언시 1수만이 실려 있는데, 聯句의 차이가 분명하다. 원집의 연구는 4편에 1,750여자가 될 정도로 장편이다. 별집의 연구는 5편인데 모두 5언8구로 되어 있어 길이 면에서 원집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이식이 원집을 산정하면서 누락시킨 것을 송시열이 별집에 추가한 것이다.

33) 이응백·김원경·김선풍 교수 감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4).

별집 권2에 실려 있는 문장은 모두 9편인데, 그중에서 「師友錄」이 주목된다. 이 글은 권필이 교류하던 인물과의 관계와 특장을 기록한 것인데, 대상자는 洪至誠, 조위환과 조찬한 형제, 成輅 등 4명이다. 師友錄이라는 제목 아래 협주로 ‘초고를 시작하였으나 마치지 못했다(起草而未及終篇)’이라고 첨기되어 있다. 사실 권필의 사우관계가 이들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권필이 만년에 사우록을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로 이식이 원집에서 제외시킨 것을 송시열이 별집에서 첨부한 것을 알 수 있다.

### 3.4 기술방식

원집의 기술방식을 살펴보면 각 권의 첫 행에는 권수를 표시하고 다음 행에 상란에서 한 자 내려 詩體를 명시했다. 시의 제목은 상란에서 2글자 내려 썼는데, 제목이 길 경우 다음 행부터는 상란에서 3글자 내려 썼다.<sup>34)</sup> 시에 并序나 小引이 있을 경우에는 상란에서 3자 내려 썼다. 병서의 예를 하나 소개한다. 문집의 처음에 실려 있는 <四懷詩>와 병서이다.

나는 성품이 소탄해서 세상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못 예법을 중시하는 인사들이 배척하는 바가 되었다. 더불어 형상을 잊고 서로를 의심치 않는 사람은 겨우 네 사람 뿐이다. 세상에 난리가 나서 간 곳을 잃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알 길이 없다. 지난 날 교유의 성대함을 생각하니 낙막하기가 마치 꿈속의 일만 같다. 시절을 느끼고 지난 날을 그리며 5언시 4편을 지으니, 무릇 1,750언이다. <네 사람을 그리는 노래>라 이름 지어 두보의 <여덟 사람을 애도하는 시>에 견준다.<sup>35)</sup>

이러한 방식은 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시한다. 이렇게 앞에서

34) 권1과 권8에 간혹 제목이 길어도 상란에서 2글자 내려 쓴 것이 있는데 이는 판각하는 자의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35) 「石洲集」 권1, 「四懷詩 并序」.

‘余性疎誕 不宜於世 頗爲禮法之士所紉 所與忘形不相疑者 獨有四人焉 世亂相失 存沒不可知 言念曩日交遊之盛 落莫如夢中事 感時懷舊 作五言詩四篇 凡千有七百五十言 命曰四懷 以擬工部八哀云.’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시의 말미에 詩作의 이유와 과정을 해설한 것도 있다. 이때에도 상란에서 3자 내려 썼다. 이러한 예로 권8의 끝부분에 있는 설명을 들 수 있다.

지난 해 겨울, 내가 남쪽으로 가다가 오산에 이르렀을 때 조군 선술이 진원의 토천에 새로 집을 지었던 말을 들었다. 즉시 눈을 무릅쓰고 찾아갔더니 지세도 있었다. 두 사람이 나를 보더니 반가워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심지를 잘라 가며 연구를 지어 날이 밝자 작별하고 떠났다. 며칠 뒤에 선술이 황계로 나를 찾아왔는데, 다시 눈 오는 밤을 만나 토천의 고사를 이었다. 다만 지세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또 며칠 뒤에 두 사람이 같이 황계로 와서 하루 밤을 자고, 다시 토천으로 간다기에 내가 이를 쫓아가서 닷새 밤낮을 계속 머무니, 문주의 즐거움이 자못 흡족하였다. 연구로 지은 시가 거의 1천 5백여 마디나 되었다. 두 사람은 시상이 몹시 장하여 마치 물이 솟아나고 산이 나오는 것 같았다. 나의 부족함으로 우러러 빼어난 자취를 따르려니 주제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번 헤어지고는 잠깐 만에 이미 해가 바뀌었으니, 눈 오는 창 바람이 흔들리는 등축 아래 한갓 몽상의 사이에 들 뿐이었다. 전후로 적은 4편을 때때로 읽으면 서 울적한 심사를 달래 본다. 신축년 초 봄 강도로 돌아와서 적는다.<sup>36)</sup>

이 해설은 권8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土泉同宿聯句>, <黃溪同宿聯句>, <土泉再會聯句>, <述懷聯句> 등 4편의 시를 짓게 된 과정과 심정을 한꺼번에 설명한 것이므로 병서의 예와는 약간 다르다.<sup>37)</sup> 이러한 예는 또 있다. 권8에서 ‘松’, ‘竹’, ‘梅’, ‘菊’, ‘蓮’을 대상으로 5수의 시를 지은 뒤에 이에 대한 後序를 적어놓았다. 이것은 권필이 스스로 원고를 정리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문인들의 일반적인 행위였다.<sup>38)</sup>

36) 『石洲集』 권8.

‘去年冬 僕南行至鼇山 聞趙君善述新築于珍原之土泉 卽冒雪往叩 而持世在焉 二公得我數敷之色可掬 剪燭聯句 天明別去 後數日 善述過僕於黃溪 更值雪夜 續土泉故事 祇以欠持世爲歎 又數日 二公同到黃界溪宿一夜 還往土泉 僕從之 留連五晝夜 文酒之樂頗洽 所聯詩近千五百餘言 二公藻思甚壯 如水涌山出 以僕之蹇劣 仰追逸軌 得無僭耶 一別俄頃 已復隔年 雪窓風燭 徒入夢想間耳 錄前後四篇 時時閱覽 用破鬱陶 辛丑初春 歸到江都 識之.’

37) 여기에서는 후서의 첫행은 상란에서 2자 내려 쓰고 다음 행부터는 상란에서 3자 내려 썼는데 이것도 판각자의 실수일 것이다.

38) 허균은 권필의 성격이 지나치게 소탈하여 문집을 정리해 놓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권필은 시를 짓고 나서 해설이 필요하면 소자쌍행으로 협주를 첨기하였다. 「夢中作」의 예를 들어 본다. 이 시는 오언율시인데 시를 수록하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협주가 있다.

신미년 겨울에 양직당에서 독서하다가 꿈 속에 구용의 편지를 받아 시를 지어 답했다. 깨고 나서도 확실히 기억할 수 있었는데 시의 뜻은 알 수가 없었다. 계사년 가을에 내가 덕수에 있을 때 구용이 관서에서 편지를 보내 물었다. 헤어진 지 이미 2년이나 되었으니 비로소 이 시가 정험이 있음을 알았다.<sup>39)</sup>

이 협주를 통해 독자들은 이 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권필은 또 차운시의 경우, 元韻을 첨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원래의 시를 수록하였는데, 이런 때에는 상란에서 1자 내려 ‘附元韻’이라 쓰고 다음 행에 상란에서 3자 내려 원작을 실었다. 예를 들어, 「石洲集」 권1의 ‘次韻趙持世緯韓以善工監役官觀刈葦於鴨島自嘲之作’<sup>40)</sup>의 시에서는 조위한의 원작<sup>41)</sup>을 첨부하였다. 원운에 後序가 있으면 그것까지 그대로 수록해 놓았다. 이때는 협주가 아니라 다른 후서와 같이 상란에서 3자 내려 썼다.<sup>42)</sup>

별집에 실려 있는 한시는 원집의 방식과 동일하다. 외집과 별집의 문장은 제목의 경우 상란에서 2자 내려 쓰고, 본문은 상란에 붙여 썼다. 원집과 외집은 내용이 끝나면 별다른 기록 없이 여백으로 남겨 놓았는데, 별집은 마지막 행에 石洲別集卷之一, 石洲別集卷之二 등의 기록이 있다.

예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石洲集」 권3, 「夢中作」.

‘辛未冬 在兩直堂讀書 夢得具容手札 詩以答之 覺後了然記得 未解詩意 癸巳秋 予在德水 具自關西枉書相訊 別已二歲矣 始覺此詩有驗.’

40) 조지세 위한이 선공감역이라는 관리로 압도에서 갈대 베는 일을 살피러 가서 자조한 작품에 차운함.

41) 趙緯韓, 「玄谷集」 권1, <五言古詩>.

‘監刈自嘲寄東臯崔令公豈仍示石洲權汝章鞞.’

42) 「石洲集」 권7, 「和子敏絕句」 아래에 원운을 첨부하고 원시의 후서까지 부록하였다.

#### 4. 結論

石洲 權輶(1569~1612)은 한문학이 융성했던 조선 중기에 있어서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시인으로서 그의 시는 한국 한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권필의 위상으로 인해 『石洲集』은 비교적 일찍 간행되었고, 三刊되었다.

본고에서 『石洲集』을 연구의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이 문집이 조선조 문집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石洲集』은 권필의 생전에 일차적으로 정리된 초고가 있었으며, 본격적으로 문집의 발간이 계획되었을 때 원고를 산정하고 편제를 확정한 교정자가 있었고, 이를 실제로 간행한 인물이 있다. 그리고 重刊과 三刊을 거듭하였으며, 原集과 別集, 外集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도 남아 있다. 그리고 『石洲集』의 편차방식은 후대의 문인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 이후의 문집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石洲集』이 초간된 것은 권필의 사후 20년 뒤인 1632년(인조 10, 壬申)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문과 발문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 권필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詩稿를 沈器遠에게 주었다. 沈器遠은 권필의 제자로서 동문수학한 洪寶와 함께 문집을 간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심기원은 오숙과 함께 원고의 편차를 정리하여 일차적인 작업을 마친 심기원은 문집의 간행을 위해 李植에게 원고의 교정을 부탁하였다. 문집에 실릴 작품을 선별하고 편차를 정리하여 지금의 『石洲集』으로 만들어 놓은 인물은 李植이다. 교정을 마친 심기원은 때마침 전주의 부윤으로 재임하던 홍보에게 문집의 印刊을 상의하였고, 마침내 전주에서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김수항은 『石洲集』이 조선조 문집 중에서 체제가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이식이 편집한 『石洲集』은 당시에 문집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식은 『東岳集』의 산정과 편집에도 관여하였다.

『石洲集』이 중간된 것은 1674년(현종 15, 甲寅)이다. 중간본에는 초간본에 수록되지 못한 시 100여 수가 별집이라는 이름으로 첨부되었다. 따라서 중간본은

원집과 외집, 별집의 구성을 갖게 되었다. 별집을 간행하게 된 동기는 그때 전라도 관찰사였던 李東稷이 「石洲集」을 중간하고자 하므로, 권필의 손자 권수가 원집에 수록되지 못한 600여 수의 시를 추가하기 위하여 송시열에게 산정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별집에 수록할 시문을 선정하면서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유학자의 도리에 벗어나는 작품은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발문에서 밝혔듯이 젊은 시절에 장난삼아 지은 戲作과 승려들과의 교유시, 풍자가 심한 시는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사신과 주고받은 시는 남김없이 수록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명이 몰락한 뒤이므로 중국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는 행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시를 가지 있게 여긴 것이다. 여기에서 춘추대의를 주장하던 송시열의 입장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권필의 시가 사장된 것만도 500여 수가 되었다.

삼간본은 후손인 권적이 1742년(영조 18, 임술)에 전주에서 간행하였다. 권적은 권필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할 때 「石洲集」의 판본을 모아 세 번째로 간행하였다. 이 삼간본은 원집과 외집, 별집의 내용에 다른 것이 없고 특별한 간행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이전에 간행한 문집의 수량이 적어 주변의 요구에 의해 다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집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1은 詩이고 권2는 文이 실려 있다. 권1에 실린 시는 원집의 배열방식을 따르고 있다. 문집의 기술방식은 다른 문집과 유사하다.

「石洲集」의 원집은 詩體에의 분권되어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권필이 소장하고 있던 원고가 이렇게 한시의 형식별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열은 이식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石洲集」의 체재와 가장 유사한 문집은 「象村集」이다. 「象村集」은 1630년에 초간되었으니 「石洲集」보다 2년의 차이는 있으나 동시대에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象村集」은 명대의 문인인 大復 何景明의 문집인 「大復集」의 체재를 본떠 편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에 명대 문집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石洲集」 이후의 문집들을 살펴보면, 「仙源遺稿」와 「淸陰集」이 시체별로 편집되어 있는데 「石洲集」과 일치하지는 않고, 趙緯韓의 문집인 「玄谷集」의 편차가 거의 동일하며 趙

權輶의 문집인 『玄洲集』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다. 권필은 조위한과 조찬한 형제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교유했던 관계라는 사실을 볼 때 『石洲集』이 이들의 문집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石洲集』의 여러 판본과 이본의 대교는 이 문집의 원형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추정으로는 서발에서 말한 대로 三刊에 그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쇄상태와 판각의 서체 등까지 고려하여 간행된 순서와 첨부 및 누락의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집의 색인 작업이 된다면, 국문학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權輶. 『石洲集』.

李安訥. 『東岳集』.

李廷龜. 『月沙集』.

張維. 『谿谷集』.

金萬重. 『西浦漫筆』.

南龍翼. 『壺谷漫筆』.

『仁祖實錄』.

김순희. “『문곡집』의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연구』 50집(2011. 12). 513-535.

김은희. “石洲 권필 文學의 一性格: 方外人的 傾向을 中心으로.” 『德成女大論文集』 29(1998. 12). 243-279.

김창호. “石洲 권필 詩의 研究.” 『漢字漢文教育』 제13집(2004. 11). 371-404.

\_\_\_\_\_. “權輶과 許筠의 交遊를 通해 본 16世紀 末 - 17世紀 初文壇의 한 모습.”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제8회 연구발표회(2007. 7). 2-13.

문범두. “石洲 권필문학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嶺南大 大學院. 1994. 2.

- \_\_\_\_\_. “석주 권필의 사회시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25집 (1994. 8). 321-356.
- 成範重. “石洲 권필의 漢詩 考察.” 『울산어문논집』 5(1989. 2). 159-197.
- 소재영. “石洲 권필소론.” 論文集. 승전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동서문화연구소』 6,1(1976. 3). 441-458.
- 송재용. “石洲 權輶의 諷刺詩에 관한 一考察.”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제9집(1992. 12). 95-123.
- \_\_\_\_\_. “石洲 권필론.” 『漢文學論集』 12(1994. 11). 389-425.
- 이대구. “石洲 권필의 시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韓國敎員大 大學院. 1994. 8.
- 이상원. “석주 권필 시의 미학: 광기와 풍자로 얼룩진 야유의 시세계.” 『뿌리』 통권 34호(2009년 여름). 194-247.
- 鄭 珉. “石洲 權輶의 雜體詩 研究(其一).”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제4집(1986. 12). 113-150.
- \_\_\_\_\_. “石洲 권필의 詩觀과 詩精神.” 『安東漢文學』 2(1991. 8). 261-299.
- \_\_\_\_\_. “石洲 권필 年譜.”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韓國學論集』 20(1992. 2). 269-295.
- 정민 역. 『石洲集』. 태학사, 2009.
- 정성배. “石洲 권필의 文學의 小攷: <光海君日記> 기사를 중심으로.” 『전농어문연구』 8(1996. 3). 67-85.
- 조도현. “<酒肆丈人傳>과 <郭索傳>에 나타난 權輶의 作家意識.”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106집(2009. 12). 241-260.

